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놓으면 '자유' 붙들고 있으면 '업'

### 돌아가신 어머니 위한 효도

문 며칠 전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잘해 드린 것 하나 없이 불효만을 했다는 생각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길 청하합니다.

답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지극하다면, 본래 공심(公心)이기 때문에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기 전에는 개가 밥도 먹지 않고 주인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집에 들어와 밥도 먹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를 보는 순간 '아, 나의 어머니도 살아 생전에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밥도 안 드시고 나를 기다리셨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개가 어머니로 화하더니 '내가 너의 엄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개를 안고서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지게에 얹고 살아생전에 구경시켜드리지 못했던 곳을 모시고 다니며 구경시켜 드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개가 공공 앓더니만 아들이 나오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개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도리를 알게 됐으니 이제 그만 가려다' 하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머니의 마음은 육신이 없든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을 이끌어주는 자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밥 한 숟가락 떠먹을 때도 공심으로, 일체와 풀이 아닌 다음으로 공양(供養)을 한다면 그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가 달랐습니다. 조상이 모순만 없어졌다 뿐이지 영혼은 있으니깐요. 그리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재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만 공심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밥 먹을 때에 조상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과 더불어 공심으로 살아갈길 바랍니다.

### 나는 누구입니까

문 사람들은 살면서 가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고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스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기독교 신자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답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이 모두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면 뭐가 있었습니까? 상대성 원리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태어나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하고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하는 거죠. 뒷 눈썹과 아랫눈썹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과 모든 업을 붙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놈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억집 이끌어 온 주인공이 압니다 모든 생각 주인공에 놓으세요

어느 것 하나 독립된 개체라고 할 수 없이 한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제 같이 생겼고, 제각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한 한 뿌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공심·공용·공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을 합시다만,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는 장본인은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에서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 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도록 말입니다.

또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콩씨로 있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었죠? 콩씨가 콩나무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씨라면 그 콩씨는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도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 면 아마 백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실 않았다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고 밀어 넣으세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수 안경에 걸쳐서 이끌어 온 장본인, 주인공만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를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내 마음 안에서 들고 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 다 집어넣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 조상 천도재 지내고 싶어요

문 스님, 조상님 천도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기도를 올려서 천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어떻게 관(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그것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천도식을 하는 겁니다. 흥내를 내는 거지요. 그 자체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해라' 하고 말습해 놓으신 것을 말로만 따라 외우면서 해주는 천도재가 있습니다.



그림·최주현

또 한 단계는 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재를 지내는 스님네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딱 한 그릇 차려놓고라도 함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영령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전체가 내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갖고 어떤 것을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 것이니까, 즉 스님네들의 마음내는 능력에 따라서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님네들은 조상님들의 은혜도 갚을 수 있고 자손들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천도재를 지내려 합니다.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놓고서 천도할 때, 일체 제불의 마음과 조상님들의 자식 위하는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짐으로써 아주 큰 밝은 불이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추웠는데, 저기 큰 밝은 불이 있으니 가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가는 것이 천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 달리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릇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발이나 종지나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내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것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잘나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정말이지 당당하고 원력이 있게 되었을 때, '아하, 일체 제불의 마음과 모든 조상들의 마음이 들이 아닌 까닭에,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고 드는 것이니 여러 가지 차려놓고 빌고 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촛불 하나 안 켜봐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밝은 인등을 켜니까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 속에서 온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온누리에 통신이 아니 됨이 없고, 온 누리에 바로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돌아갈 때, 그 조상의 마음도 거기 한 자리하는 거죠. 그러니 뭘 또 따로 지내 고 지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천도재를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무심의 통장이 됩니다. 깨우치지 못해서, 참공덕은 받지 못하나 자식의 공덕으로 부모가 무의 세계에서 통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로 인해 공덕을 받았으니 무지한 사람 안되고 당당한 사람으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식의 공덕으로 천도된 분들은 복주머니 안 가지고 나오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 신·구·의 삼업 공금합니다

문 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 가장 많은 업을 짓는 것이 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장 크게 짓는 업은 무엇인지요?

답 나는 업에 대해서 묻는 분들께 "업은 본래 공한 것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한번은 어떤 신도님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아침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절에 오는 중에 논둑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두꺼비 한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돌덩이를 하나 주워서 던지고는 부리나케 도망쳤습니다. 얼핏 보니까 제가 던진 돌맹이가 두꺼비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면서 내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만 피부상이가 된 두꺼비 생각이 나고, 큰 죄를 지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오셨는데, 오신 발자국을 내게 보여 주실 수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생님께서 분명이 걸어서 여기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결을 한결을 걸어오신 발자국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게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발자국을 어디 가지고 다니거나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바로 맞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그 발자국은 지금의 선생님에게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죄도 선생님에게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죄도 공한 것입니다."

놓으면 자유요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 업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죄 많은 하고 따지기 이전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를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조상이자 스승인 나의 근본 주인공이 분명히 있다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의학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한방의사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황인형 엮음 / A5 / 334면 / 10,000원

##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술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깔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식 저 / 4·6변형 / 156면 / 13,000원

##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의

###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저 / 4·6변형 / 176면 / 13,000원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정갈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승해 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